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숙종대) 해제

홍 기 표\*

- I. 『승정원일기』 개요
- II.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영인 및 역주
- III.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숙종대) 역주 및 특징
- IV.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숙종대) 주제별 분석

## I. 『승정원일기』 개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은 승정원이다. 그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와 왕이 신민에게 내리는 모든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 및 심의 결정과 경연 등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를 날짜별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승정원일기』이다.

‘왕명 출납’의 업무는 조선 건국 직후 반포된 관제에 의하면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은 중추원의 속아문인 승지방에서 담당하였다. 물론, 이때의 중추원은 왕명 출납 이외에 軍機도 관장하는 강력한 기구였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자,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 분할하였다. 군기의 사무는 의흥삼군부로 이관하고, 왕명 출납을 위하여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다.

---

\*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E-mail: hkp6236@naver.com)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이 시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불타면서 200여 년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32년간의 일기 역시 1624년(인조 2)에 있었던 ‘이괄의 난’ 때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순종 4) 8월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등으로 바뀌어 갔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명칭도 각각 달리 부르게 되었지만, 승정원의 기능은 계속 이어가면서 일기를 남겼다. 현재 전하는 『승정원일기』는 모두 3,24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일기의 명칭과 책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승정원일기의 명칭과 책수

명 칭	책수	기 간
승정원일기	3,047	1623. 3. ~ 1894. 6.
승선원일기	4	1894. 7. ~ 1894.10.
궁내부일기	5	1894.11. ~ 1895. 3.
비서감일기	8	1895. 4. ~ 1895.10.
비서원일기	115	1895.11. ~ 1905. 2.
비서감일기	33	1905. 3. ~ 1907.10.
규장각일기	33	1907.11. ~ 1910. 8.

『승정원일기』는 무엇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를 통해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의 정치 흐름을 당시 상황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왕정 체제하에서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료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여 1차 사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총 3,245책에 2억4천250만자가 기록된 단일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이다. 888책 5천 400만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이다.

『승정원일기』의 원본은 활자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草書로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된 것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61년부터 1977년까지 원본의 초서를 해서(정자체)로 고치고 구두점을 달아 영인본 144책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 영인본의 한자를 전산 입력하기 시작해 2015년 12월 드디어 승정원일기 전 내용이 DB화 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에 들어가 2030년대 완역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인조(1623~1649), 고종(1864~1907), 순종(1907~1910) 때의 일기가 완역되어 있다. 그리고 효종 즉위년(1649) 5월(13일~30일)과 영조 때의 일부 기간(즉위년 9월~8년 4월)이 번역되어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승정원일기』 한문 원문 전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인조, 고종, 순종대의 전 시기 및 효종, 영조 때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다.

## Ⅱ.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영인 및 역주

『승정원일기』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에서도 일찍부터 이에 주목하여 그 관련 사업을 펼쳐왔었다. 먼저 관 주도로 제주도(청)에서는 지난 2001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제주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상, 하)』 2권의 영인본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두 권은 영인된

한문 원문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희미할 뿐 아니라 연도별 편차 구분도 정리되지 않아 전문적인 학자도 독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물며 번역 없이 영인된 한문 원문만 제공된 책이어서 일반인은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효종대의 제주 관련 기사 발췌 건수가 83건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동시기 제주기사는 총 147건(동일 날짜의 기사 중 주제가 다른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계산하면 총 158건)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탈락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로 도서출판 제주문화(경신인쇄사)에서 2012년 『승정원일기』 중 제주기사(제주문화총서) 전질 21권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승정원일기』 원문 중 1623년(인조 1) 3월부터 1825년(순조 25) 12월까지 기간 중 '濟州', '旌義', '大靜'과 '楸子'의 네 검색어로 발췌한 모든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학계 및 관계의 지원 없이 오로지 출판사 편집부만의 힘으로 검색과 편집을 도맡아 21권의 전질을 발간하여 제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번역 없이 한문 원문만 제공하였기에 역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료이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였다. 물론 그 내용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뿐 아니라, 왕대별로 묶어 책자로도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에는 제주학 연구 및 역주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낸 전공자 4인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으며, 제주기사의 채록은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총 16,39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 순종을 제외한 인조에서 고종까지의 기사만 하더라도 16,351건에 달했다. 이는 동시기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총 1,638건의 1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 사실을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현황

구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승정원일기(인조~순조)	8,775	1,537	3,542	1,987	553	16,394
승정원일기(인조~고종)	8,741	1,532	3,538	1,987	553	16,351
조선왕조실록(인조~고종)	1,096	154	204	83	101	1,638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1,000건이 넘는 다수 기사가 소개된 때는 정조(4,747), 영조(3,951), 고종(1,797), 순조(1,775), 숙종(1,132), 헌종(1,052)의 순이다. 이 중 영조, 정조 때의 기사가 8,698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영정조와 순조 때를 합하면 10,473건으로 전체 기사의 2/3에 달한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75), 대정(3,542), 추자(1,987), 정의(1,537), 탐라(553)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특징은 ‘제주’가 절반이 넘는 다수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추자도’에 대한 기사가 ‘정의현’의 기사보다 많다는 점이다. 또한 대정현의 기사가 정의현보다 두 배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유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 역주 작업에 착수하여 2017년 6월 처음으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Ⅰ)』(효종 대)를 간행하였다. 총 158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 기사 39건의 4배에 달했다. 그 후 2018년에는 두 번째 성과물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Ⅱ)』(현종대)를 발간하였다. 총 330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 기사 38건의 거의 10배에 달했다.

[표 3]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인조	302	20	26	2	3	353

효종	139	16	13	1	5	174
현종	213	29(1)	104	4	1	351(1)
숙종	877	116(1)	109	1	29	1,132(1)
경종	104	19	158	3	4	288
영조	2,090	432(2)	940	148	341	3,951(2)
정조	1,908	390(1)	1,691	631	127	4,747(1)
순조	1,183	125(1)	139	305	23	1,775(1)
헌종	321	171(1)	204	354	2	1,052(1)
철종	458	88	47	104	2	699
고종	1,122	118	107	434	16	1,797
순종	34	5	4			43
은대조례	5					5
은대편고	19	(1)				19(1)
계	8,775	1529(8)	3,542	1,987	553	16,386(8)

### Ⅲ.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숙종대) 역주 및 특징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Ⅲ)』(숙종대) 역주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다. 예전 효종, 현종대 기사의 몇 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연히 역주위원도 1인이 초대되었으며, 교열위원 2인도 투입되었다. 숙종대(1674~172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는 총 1,059건이 확인되었다.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6), 대정(109), 정의(115), 탐라(28)의 순이었다. 단일 기사에 두 개 이상 주제가 들어간 중복된 경우는 총 69건이었다. 추자 기사는 1건 검색되었으나 지명이 아닌 식물 열매를 지칭한 내용이어서 제외하였다. ‘제주’ 기사가 거의 4/5에 해당되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대정’과 ‘정의’ 기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제주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숙종대 제주기사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는 1,059건인데 비해 『숙종실록』은 163건, 『숙종보궐정오』는 5건

에 불과했다. 예컨대 ‘제주’ 기사는 876건vs145건, ‘정의’ 기사는 115건 vs16건, ‘대정’ 기사는 109건vs15건이었다. 『승정원일기』의 제주 관련 기사 분량이 『조선왕조실록』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보다 제주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숙종대 제주기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4-1]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제주기사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계
1675년(숙종 1)	9	1			(1)	10(1)
1676년(숙종 2)	3				(1)	3(1)
1677년(숙종 3)	4					4
1678년(숙종 4)						
1679년(숙종 5)	4	1(1)				5(1)
1680년(숙종 6)	5					5
1681년(숙종 7)	3	(1)	(1)			3(2)
1682년(숙종 8)	6	(1)	(1)			6(2)
1683년(숙종 9)	9	(1)	(1)			9(2)
1684년(숙종 10)	1					1
1685년(숙종 11)	2					2
1686년(숙종 12)	2					2
1687년(숙종 13)	1					1
1688년(숙종 14)					1	1
1689년(숙종 15)	4			(1)	(1)	4(2)
1690년(숙종 16)	1					1
1691년(숙종 17)	2					2
1692년(숙종 18)			1			1
1693년(숙종 19)	4	1				5
1694년(숙종 20)	5	(1)	1(1)			6(2)
1695년(숙종 21)	3					3

1696년(숙종 22)	1	1				2
1697년(숙종 23)			1			1
1698년(숙종 24)						
1699년(숙종 25)	1					1

[표 4-2]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제주기사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 계
1700년(숙종 26)	2		1			3
1701년(숙종 27)	9					9
1702년(숙종 28)	2		2			4
1703년(숙종 29)	8	1(1)	(2)		(1)	9(4)
1704년(숙종 30)	1				2	3
1705년(숙종 31)	3	(1)	(1)		(1)	3(3)
1706년(숙종 32)	6					6
1707년(숙종 33)	2					2
1708년(숙종 34)	2					2
1709년(숙종 35)	1					1
1710년(숙종 36)	2				1	3
1711년(숙종 37)	1					1
1712년(숙종 38)	2					2
1713년(숙종 39)	6	(1)	(1)			6(2)
1714년(숙종 40)	1					1
1715년(숙종 41)	1					1
1716년(숙종 42)	13	(2)	(1)		1(2)	14(5)
1717년(숙종 43)	5				(1)	5(1)
1718년(숙종 44)	1				1	2
1719년(숙종 45)	6	(1)				6(1)
1720년(숙종 46)						
부록,묘지문					1	1
부록,행장	1				(1)	1(1)
합 계	145	5(11)	6(9)	(1)	7(9)	163(30)



[표 5-1]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 현황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계
1674년(숙종 즉위)	3	1	0	0	0	4
1675년(숙종 1)	41	2	0	0	0	43
1676년(숙종 2)	27	5(1)	4(6)	0	(1)	36(8)
1677년(숙종 3)	13	0	3(1)	0	0	16(1)
1678년(숙종 4)	14	3	0	0	0	17
1679년(숙종 5)	33	3(2)	4	0	0	40(2)
1680년(숙종 6)	32	0	6	0	0	38
1681년(숙종 7)	28	2	1(2)	0	0	31(2)
1682년(숙종 8)	26	1	0	0	0	27
1683년(숙종 9)	10	0	0	0	0	10
1684년(숙종 10)	27	2	2(2)	0	0	31(2)
1685년(숙종 11)	20	0	0	0	0	20
1686년(숙종 12)	18	3	1(2)	0	0	22(2)
1687년(숙종 13)	22	0	0	0	0	22
1688년(숙종 14)	21	0	0	0	0	21
1689년(숙종 15)	44	5(2)	2(1)	0	0	51(3)
1690년(숙종 16)	16	0	0	0	(1)	16(1)
1691년(숙종 17)	18	0	3	0	0	21
1692년(숙종 18)	8	2(1)	(1)	0	0	10(2)
1693년(숙종 19)	15	30(2)	0	0	(1)	45(3)
1694년(숙종 20)	31	1	3(1)	0	(1)	35(2)
1695년(숙종 21)	0	0	0	0	0	0
1696년(숙종 22)	23	4	0	0	0	27
1697년(숙종 23)	13	3	12(1)	0	0	28(1)
1698년(숙종 24)	3	0	2	0	0	5
1699년(숙종 25)	6	4	0	0	0	10

[표 5-2]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 현황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 계
1700년(숙종 26)	12	1	2	0	0	15
1701년(숙종 27)	18	(3)	1(3)	0	0	19(6)
1702년(숙종 28)	10	5	4	0	0	19
1703년(숙종 29)	26	1(5)	4(6)	0	(2)	31(13)
1704년(숙종 30)	36	2	3	0	1	42
1705년(숙종 31)	19	1	2(1)	0	1	23(1)
1706년(숙종 32)	14	2	0	0	0	16
1707년(숙종 33)	20	0	2(1)	0	0	22(1)
1708년(숙종 34)	13	0	0	0	(1)	13(1)
1709년(숙종 35)	18	1(2)	0	0	1	20(2)
1710년(숙종 36)	11	0	1	0	(1)	12(1)
1711년(숙종 37)	13	3(1)	1(2)	0	0	17(3)
1712년(숙종 38)	14	0	(2)	0	1	15(2)
1713년(숙종 39)	28	3(1)	3(1)	0	(1)	34(3)
1714년(숙종 40)	15	0	2(1)	0	0	17(1)
1715년(숙종 41)	23	(1)	0	0	4	27(1)
1716년(숙종 42)	30	1(1)	2(1)	0	3(1)	36(3)
1717년(숙종 43)	11	0	0	0	0	11
1718년(숙종 44)	2	1	1	0	7	11
1719년(숙종 45)	25	0	2(1)	0	0	27(1)
1720년(숙종 46)	6	(1)	0	0	0	6(1)
합 계	876	92(23)	73(36)	0	18(10)	1,059(69)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는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제주 최초의 서원인 ‘橘林書院’의 賜額 과정을 소개한 기사이다. 1682년(숙종 8) 6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유생들의 사액 청원에 대해 처음 해당부서에서는 반대하여 허락하지 않았지만, 당시 우의정이었던 金錫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액 허가가 이루어졌다.

“가만히 들으니, 제주 유생들이 네 신하의 서원에 대해 사액을 청하는 문제로 멀리서 와서 상소를 올렸는데, 해조(該曹)에서 첩설(疊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입계(入啓)하여 윤휴 받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중략) 또한 향사하는 4인으로 말하자면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 대사헌 송인수(宋麟壽),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 참판 정온(鄭溫)입니다. 이 네 신하는 모두 문학과 명절(名節)이 있었는데, 본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다 밖 사람들도 또한 존경하고 사모하여 향사하는 곳을 만들어 표준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의 주현(州縣)에 부산하게 중첩으로 설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듯합니다.”

漢拏山神祭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1703년(숙종 29) 8월 7일 기사에 영의정 申琯이 해외명산인 한라산이 祀典에 누락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실어야 한다는 건의가 처음 등장한다. 결국 한 달 뒤인 동년 9월 5일 기사에 의하면 사전에 수록되어 雉嶽山의 예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였다.

“대신들의 의견을 아뢴 일로 전교하시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결(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지금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제례(祭禮)와 축문식(祝文式)은 치악산(雉岳山) 등의 제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형편상 합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휴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숙종대 제주 인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76년(숙종 2)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의 인구는 대체로 3만 남짓이며, 바로 전해에 발생한 대홍년 때문에 1만여 명이나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인 1694년(숙종 20) 11월 8일 기사에 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인구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온 섬이 비록 세 고을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이 협소한 데다 인민

(人民)도 적다. 민호(民戶)의 수는 합하여 거의 8,850여 호에 이르고, 민구(民口)의 수는 남녀(男女)와 장약(壯弱)을 합하여 거의 44,820여 구이다.”

또한 세공마의 운송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84년(숙종 10) 7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세공마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0일 이전까지였다. 그 이유가 1688년(숙종 14) 8월 3일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일찍이 전에는 제주에서 공마(貢馬)를 올려 보내는 것이 8,9월 풀이 다 시든 때여서 죽게 할까하는 근심이 많이 있었다. 때문에 효종 때 이래로 특별히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하고, 여러 차례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후에는 매년 7월 안에는 거의 다 올라왔다.”

제주 세공마 운송시 육지 여러 군현의 선적들이 제주로 향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689년(숙종 15) 7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호남 지역에서 제주 세공마 운송을 위해 제주로 배를 보내야 했던 지역은 순천, 장흥, 광양, 나주, 영광, 무장, 진도 등 일곱 곳이었다.

“제주마를 세공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도 각 읍이 삼가 거행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배를 늦게 댈 순천·광양 등의 읍과 사공의 수를 적게 보낸 장흥·영광·무장·광양·진도·순천 등 읍의 담당 아전들을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고, 배를 처음부터 대지 않은 나주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호남 지역의 여러 배들이 제주 세공마를 운송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적재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의 큰 배가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음도 확인된다. 1708년(숙종 34)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宋廷奎의 상소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대개 육지 읍의 배들은 비록 매 척에 35필까지이지만, 제주의 큰 배는 7,80필을 실을 수 있습니다.”

#### IV.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숙종대) 주제별 분석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숙종대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본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누면 각각 693건, 190건, 127건, 49건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네 분야는 다시 1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기록된 사실을 살펴 보았다. 정치는 인사(356), 사법(167), 유배(131), 역모(16), 행정(14), 군사(9)의 6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마정(116), 공물(65), 조세감면(9)의 3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진휼(52), 표류(37), 흉전(14), 재난(11), 기타(13)의 5주제로, 문화는 과거(39), 의례(8), 기타(2)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 중 정치 분야가 693건으로 2/3에 해당한다. 제주목민관들의 인사, 추고 및 치죄 청원, 유배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 분야 기사가 356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그 대다수(231건)는 제주목민관의 제수, 사은, 하직 기사이다. 제주목사(67건), 제주판관(46건), 대정현감(45건), 정의현감(40건), 제주교수(29건), 제주점마별감 및 산마감목관(4건)에 대한 순수한 임명 관련 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듯 순수 임명 관련 기사가 다수 수록된 배경에는 제주목민관 동일인의 ‘제수(선임)’와 ‘사은(선임 후 임금 면담 및 감사 인사)’ 및 ‘하직(임지 부임 인사)’ 기사가 이어져 수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목사의 경우 최소한 ‘제수’ 기사만 40명에 이르는데, 실제 숙종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은 28명이다. 12명이 제수 이후 질병 또는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사직 상소를 제출하여 부

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숙종대 제주에 파견된 어사도 4회(24건)나 기록에 보인다. 1675년(숙종 1) 제주순무사 李選, 1679년(숙종 5) 제주안핵겸순무어사 李增, 1706년(숙종 32) 제주시재어사 李海朝, 1716년(숙종 42) 제주별견어사 黃龜河가 그들이다. 이선과 황구하는 흥년으로 말미암은 진흙 및 위무의 성격, 이해조는 인재등용을 위한 과거 시행, 이증은 전 제주목사와 정의현감의 불법 관련 조사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기타 제주목민관들의 擬望 및 晷經 등과 관련된 기사 20건, 가자·고과·표창 등 포폄 관련 기사 13건으로 확인된다. 특히 제주목사의 의망과 관련한 기사가 10건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제주목사의 직급은 정 3품이지만 여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제주목사만큼은 당상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즉 당상관 중으로 한정하면 그 대상인물이 너무도 협소하거나 적절한 선임이 불가하여 당하관으로 추천 대상을 확대하여 의망을 올리고 그에 대한 임금의 재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선임된 당하관의 제주목사는 곧바로 ‘加資’의 절차를 거쳐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과정도 병행되었다.

[표 6]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의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의망, 임명, 교체, 포폄, 피휼, 어사, 제주인 임명 등	356
	사법	제주목사 등 추고, 치죄, 조사 등	167
	유배	제주/정의/대정 유배인, 이배, 유배인 제주 민폐	131
	역모	과거 역모(길운절) 사례 인용, 제주유배인(장희재) 역모	16
	행정	제주인 상소, 역관 제주 배치 등	14
	군사	제주인 무과급제자 근무처, 조방장 임명 규정 등	9
	소계		693
경제	마정	세공마, 산마, 체임진상마, 점마, 공마 운송/관리/분급	116
	공물	가시목, 감귤, 궁대, 흑우, 전복 등	65
	조세 감면	환곡 탕감, 노비 신공 감면 등	9

		소계	190
사회	진흙	제주 진흙곡 논의 및 운송	52
	표류	제주 표류 한인 송환, 안남 표류 제주인 송환	37
	홀전	선박 침몰 익사자 추모	14
	재난	역병, 폭풍우, 해일, 화재	11
	기타	추쇄, 기로, 노비, 격쟁 등	13
		소계	127
문화	과거	어사시재, 직부전시 등	39
	의례	한라산신제, 풍운뇌우제 논의 및 시행	8
	기타	굴림서원 사액 등	2
		소계	49
총계			1,059

사법 관련 기사는 167건이나 되어 인사 관련 기사 다음으로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제주목민관들의 실정에 대한 추고 및 치죄(파직) 청원이 주류를 이룬다. 추고란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히는 사안을 말한다. 주로 제주목사를 추고하는 사안인데, 대부분은 종묘 등에 천신한 감귤류의 부패, 세공마지연 운송, 진상마 부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숙종대 제주목사는 金興運부터 鄭東後까지 28명이 재임했는데, 그 중 23명이나 추고를 당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참작에 의거 추고에만 그쳤다. 하지만 심한 경우 파직 청원이 잇따르고 치죄까지 이른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제주목사 蘇斗山, 尹昌亨, 尹鼎和, 李喜泰, 邊時泰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704년(숙종 30)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제주목사 이희태에 대한 추고 및 치죄 청원이다. 무려 23회에 걸쳐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호남 연안 浦民들의 제주 연해 偷採 행위에 대해 대응 미숙과 장계 과장 보고 때문이었다. 이미 이전 李衡祥 목사 때도 관련 사례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는 전투 장면을 연상하는 해적의 사례로 과장 보고를 했던 것이다. 변방 방비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십 차례의 치죄 청원이 잇따랐던 것이다.

유배 관련 기사도 131건이나 확인할 수 있어 숙종대 치열했던 봉당 정치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의 유배인 정배 사실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대정현 유배인으로는 柳赫然, 閔黯, 張希載, 吳始復, 宋尙周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의현 유배인은 李立身, 李時中, 金善弼, 李義徵, 柳沆, 韓道章 등이 있다. 제주(목) 유배인으로는 이훈(李焜, 임창군), 이엽(李焯, 임성군)의 왕족과 宋時烈, 李顯命, 李聖輝, 金春澤 등의 인물이 확인된다.

이들 중 특이 사항으로는 1676년(숙종 2) 제주에 유배된 왕족 이훈과 이엽이다. 이들은 소현세자의 손자들로 그 부친인 이석견(李石堅, 경안군) 역시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숙종의 厚待 명령이 내려지고, 이배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1682년(숙종 8)에는 해남현으로 이배되었다. 1689년(숙종 15)에는 제주에 위리안치된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이 제주 산지천 변에 유배되었는데, 그에 대해 다시 국문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되었고 결국 유배된 지 불과 백여 일만에 다시 송환되었다. 송시열은 상경 송환 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하기에 이른다. 1701년(숙종 27)에는 대정현에 유배 중이던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에 대한 처형 명령이 내려져 그는 제주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밖에 유배인의 이배, 유배인들이 제주민에게 끼친 민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 1690년(숙종 16) 초에는 그 전해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제주 유배인에 대한 육지 이배가 논의되어 결국 의금부 및 형조 소관 죄인 32명이 육지로 이배되었다. 또한 1679년(숙종 5)에는 제주에 유배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민간에 끼치는 폐해를 방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안핵어사(이증)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 행정, 역모, 군사 부문에 대한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행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인의 상소와 제주에 역관을 배치한 사실이다. 1677년(숙종 3)에는 임금의 경연 석상에서 제주 출신 봉상시주부(정6품) 김계룡이 당시 윤창형 목사가 추진 중인 모슬진성, 화북진성의 축성 중지를 요청하는 건의를 하였다. 1680년



(숙종 6)에는 제주에 역관으로 한학 및 왜학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1687년(숙종 13)에는 제주 幼學 양응도가 진홀 요청 및 산마 공마 경감 등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역모 관련 기사 중 특이 사항은 1701년(숙종 27) 제주 유배인 장희재(장희빈 오빠)의 서찰 관련 심문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군사 관련 기사로는 1705년(숙종 31) 제주 助防將 임명 규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눈에 띈다.

경제 분야 기사는 세공마 및 체임진상마 운송 등 마정 관련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세공마 마필수, 운송로, 제주마 분급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 확인된 바로, 세공마는 통상 한 해에 3회(초운, 재운, 삼운) 약 500필 전후의 말이 사복시로 보내졌다. 하지만 600필을 상회하며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1686년(숙종 12) 668필, 1691년(숙종 17) 628필 등의 기사가 그것이다. 또한 세공마를 싣고 가는 載馬船은 제주의 배 뿐만 아니라 호남 여러 지역(홍양, 강진, 여산, 무안, 광양 등)의 배들도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제주목민관을 지내고 이임할 때 사복시로 올려 보냈던 체임진상마는 현종대에 이어 숙종대에도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 상납했다.

공물 부문에서는 여러 감귤류의 진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감, 당유자, 동정귤 등 다양한 감귤류의 진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종묘 천신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운송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 부패한 채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봉진관인 제주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추궁도 이어졌다. 그 밖에 제향용 제주 黑牛의 진상과 관련해 서도 수량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수/1년'을 봄(3월 20일 이전)에 올려 보내고, 육지 이송 후 양육의 과정을 거쳐 제향에 올렸다는 점이다. 또 군기용 창병목의 제작을 위한 가시목과 기타 교자궁, 궁대통개, 백랍, 진피(약재), 전복 등의 공물 진상 사실이 확인된다.

사회 분야 기사는 진홀(51)과 표류(37)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

다. 1686년(숙종 12), 1705년(숙종 31), 1713년(숙종 39)~1716년(숙종 42)은 제주에 대흉년으로 다수의 기민이 발생하자, 진흙곡 마련, 운송 등의 논의와 시행을 다루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려 있다. 특히 1715년(숙종 41)과 1716년(숙종 42) 두 해에 걸친 흉년은 제주에 다수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제주별건어사(황구하)가 파견되고, 아사자들을 위로하는 御製祭文도 내려졌다.

표류 관련 기사는 숙종 연간 왜인 표류 및 송환 1건, 중국인 표류 및 송환 5건, 안남 표류 제주인 金泰璜 송환 1건 등의 사안이 여러 기사에 걸쳐 전한다. 왜인 표류는 1681년(숙종 7), 표류 제주인(김태황) 송환은 1689년(숙종 15) 기사에 전한다. 중국인 표류 송환 5건은 1682년(숙종 8), 1687년(숙종 13), 1692년(숙종 18), 1706년(숙종 32), 1713년(숙종 39)에 해당된다. 이 중 최대 규모는 1687년(숙종 13)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등주, 소주) 65명으로써 이들을 인솔하기 위한 역관이 파견되고 서울, 의주를 거쳐 중국 鳳凰城으로 인도되었다. 표류 제주인(김태황)은 중국 상선을 타고 송환되었는데, 조선 조정은 이들을 태우고 온 중국 상인들에게 총 2,000냥 전후의 銀子를 대가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도중 발생한 선박 침몰로 인해 그 익사자에 대한 홀전(추모) 거행 사례가 14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1692년(숙종 18) 1월에 발생한 사건이 최대 참사로 확인된다. 당시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던 대정현감 張後載를 비롯 65인이 익사되어 이들을 추모하는 은전 실시를 전교로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역병으로 인한 재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1693년(숙종 19) 천연두로 약 2,000명, 1699년(숙종 25) 여역(전염 열병)으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714년(숙종 40)에는 전염병이 확산되자 조정에서 ‘형방패독산’ 등 다량의 의약 수송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기사는 제주시재 및 급제자의 직부전시(문과 복시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전시에 응시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07년(숙종 33) 제주인 龔階遠, 吳挺賓, 高萬瞻, 1717년(숙

중 43) 제주인 高萬甲, 高處亮, 龔敎選의 전시직부 사실이 확인된다. 중요한 사실은 1701년(숙종 27) 제주에서도 문무과 초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절목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시취 인원은 전라도 초시의 일부 정원을 떼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뽑도록 하였다. 또한 제술 과목은 ‘표(表)’를 제외한 ‘부(賦)’와 ‘책(策)’으로 시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漢拏山神祭와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띈다. 조선 왕조는 명산대천에 정기적으로 제례를 지내는 규정인 祀典이 있는데, 여기에 한라산신제는 그동안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라산신제는 어사가 파견될 경우에 한해서 거행하도록 제문과 향축을 내려 보냈었다. 예컨대 1601년(선조 34) 淸陰 金尙憲이 어사로 내려왔을 때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예가 그의 『南槎錄』에 전한다. 하지만 1703년(숙종 29) 한라산신제를 사전에 포함시켜 치악산 등의 제례와 동일하게 지낼 것을 논의한 후, 이를 명문화한 사실이 전한다. 또한 풍운뇌우제는 1703년 이형상 목사 때 폐지되었다가 1719년(숙종 45) 정동후 목사에 의해 복설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1682년(숙종 8)에는 제주 유생들이 사헌(四賢;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을 모신 제주의 굴림서원에 사액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승낙한 기사가 전한다. 이른바 제주 최초의 賜額書院인 ‘굴림서원’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이었다. 이전 효종대와 현종대의 기사보다 6~7배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조선왕조실록』보다 10배 전후의 많은 사실이 담겨 있고,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세밀히 기록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제주 역사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당대 제주 사회의 면모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역주 사업은 역사문화 뿐 아니라 제주의 인문자연 전 분야에 걸쳐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 차질 없이 景宗, 英祖 등 왕대별로 지속적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사 연구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한다.